

# “가로수 방제, 천연농약 사용하겠다”

광주시·5개 자치구 긴급 대책회의…병해충 방제 개선 논의

독성 농약 사용 얹기로…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조사도

광주지역 도심 가로수 방제에 독성이 있는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7월 16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농약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곳 자치구 가로수 방제 담당 공무원들은 17일 광주 시 북구 양산동 입방을대로 가로수변에서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도로변에 심어진 느티나무 등을

직접 살펴본 뒤 농약의 유해성이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 살포한 로멕틴·어드마이어·강타자 등 23종류의 농약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천연농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로수종은 무엇인지 등 병해충 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도 독성이 있고 인체·환경에

유해한 베노밀·만코지·로멕틴·어드마이어 등 문제가 되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북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월~6월)까지 수목에 사용할 수 없는 스미사이딘과 어독성(魚毒性) 1급인 로멕틴 등 9종류의 농약을 가로수에 뿌렸으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광산구는 주유(수목 사용불가)·로멕틴 등 10종류의 농약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이들 농약제품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대신 각 자치구는 천연농약 사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난 1년6개월간 사과나무 병해충에 탁월한 주유를 가로수에 뿌렸다.

사과나무와 같은 나무종류인 가로수에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앞으로 각 가로수에 맞는 천연농약을 구입한 뒤 용법과 용량을 확인해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각 자치구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제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5개 구가 최근 1년6개월간 금남로·북문로·경열로 등 주요 도로 가로수에 로멕틴·어드마이어 등 23개 종류의 농약을 살포했다.

각 자치구별 가로수는 ▲동구 7종 8699그루 ▲서구 20종 3만296그루 ▲남구 10종 1만3425그루 ▲북구 15종 3만3524그루 ▲광산구 16종 5만3008그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회장 백희숙)는 16일 광주시 서구 용암동 세운그림유치원 대강당에서 광주지역 유치원 교사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동화구연 광주 예선대회를 열었다. 본선은 다음달 13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치러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법 “미래 퇴직금·연금도 이혼땀 나눠야”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시 표절검사부터 받는다

첫 판례…이혼소송 영향 줄 듯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정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천만원 가량이었다.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연 바 있다.

/연합뉴스

대학원 질적 향상 방안 마련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사전에 표절검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원도 학부처럼 교육과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체제가 마련된다.

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16일 서울 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행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학위에서

석사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논문작성 및 심사청구 시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원에 대해서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평가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발전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 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을 평가영역의 예시로 들었다.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은 각계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대학원대학 42개교, 일반대학 대학원 중 20개교의 실태를 조사해 개선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 19:46

해질 23:00  
달 뜨기 10:48

비바람 주의하세요

오전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비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비 | 22/27 | 보성  | 비 | 20/26 |
| 목포 | 비 | 21/26 | 순천  | 비 | 22/26 |
| 여수 | 비 | 22/25 | 영광  | 비 | 22/27 |
| 나주 | 비 | 22/27 | 진도  | 비 | 21/26 |
| 완도 | 비 | 21/26 | 전주  | 비 | 22/29 |
| 구례 | 비 | 21/27 | 군산  | 비 | 21/28 |
| 강진 | 비 | 21/27 | 남원  | 비 | 21/27 |
| 해남 | 비 | 21/27 | 흑산도 | 비 | 20/25 |
| 장성 | 비 | 22/26 |     |   |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서해 | 파고(m) 0.5~1.0 | 파고(m) 0.5~1.0 |
| 남해 | 파고(m) 0.5~1.0 | 파고(m) 0.5~1.0 |
| 남부 | 파고(m) 0.5~1.0 | 파고(m) 0.5~1.0 |
| 서부 | 파고(m) 0.5~1.0 | 파고(m) 0.5~1.0 |

◇물때

| 목포 | 밀물    | 썰물    |
|----|-------|-------|
|    | 10:51 | 05:48 |
|    | 23:04 | 18:07 |
| 여수 | 06:25 | 00:19 |
|    | 18:32 | 12:40 |

◇주간 날씨

| 18(금) | 19(토) | 20(일) | 21(월) | 22(화) | 23(수) | 24(목) |
|-------|-------|-------|-------|-------|-------|-------|
| ☁     | ☁     | ☁     | ☁     | ☁     | ☁     | ☁     |
| 22/30 | 24/31 | 24/31 | 23/32 | 24/32 | 24/31 | 24/32 |

◇생활지수

식중독

47

운동

30

빨래

40

## 법원 “시간강사 유족에 퇴직금 지급하라”

“6개월 단위 계약이지만 근로기간 1년 넘어”

박모씨, 조선대 상대 승소

광주지법 민사 3단독(판사 안태운)은 16일 논문대필 등 시간강사의 열악한 실상을 폭로한 뒤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세)씨의 아내 박모(49)씨와 자녀 2명 등 3명이 조선대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15시간에 못미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망 이전 4주간 강의시간은 주당 10시간이었지만 학생지도, 강의계획서 작성, 교육 이수 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면 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선대로 하여금 박씨에게 950만 원을, 자녀에게 각각 6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단 없이 시간강사로서 계약을 유지했다”며 “매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대학은 서씨의 상속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씨는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논문대필, 교수 사회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긴 뒤 자살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아들(26)이 이듬해 4월 교육기간 중 의식을 잃고 뇌질환으로 단기 기억상실에 간질까지 앓게 되자 박씨는 남편의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아들에게 유공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24면 발행...ABC인증 호남최대신문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VIP Limousine

172429

VIP Limousine

172430

VIP Limousine

172431

VIP Limousine

172432

VIP Limousine

172433

VIP Limousine

172434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흑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